

원자바오, 녹색에너지 집중투자 선언

5대 신 성장산업 육성 강조 ... IT · 나노 · 생명공학 · 우주해양산업 포함

원자바오(溫家寶) 중국 총리가 신 에너지산업을 비롯해 IT(정보기술), BT(생명공학), NT(나노기술), 우주·해양 산업 등 5개 분야를 전략적 신 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반관영 통신사인 중국 신문사는 원자바오 총리가 11월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회의에서 <과학기술이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>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“5대 신 성장산업으로 재생 에너지 기술, 에너지 저장기술, 청정에너지 개발, 환경보호, 청정에너지 자동차 개발 등 녹색에너지 산업을 첫 손에 꼽았다고 보도했다.

이어 신 성장동력으로 ▲인터넷과 IT산업의 발전 ▲ 나노기술과 광전자 산업 육성을 통한 신소재 개발 ▲ 생명공학 혁신을 통한 농업 및 의약품 산업을 육성 ▲ 개발 잠재력이 큰 우주 및 해양 산업 발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.

원자바오 총리는 “신흥 전략산업은 선택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”면서 “제대로 선택하면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시기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된다”고 말했다.

또 “중국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거나 기술 이전을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”며 “스스로의 능력으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1/05>